수도권 유망 콘텐츠기업 4곳 광주에 '둥지'

시, 부커스·아름게임즈·미디어스코프·지담미디어와 협약
본사 이전·인재 채용… 투자진흥지구 기반시설 성장 지원

광주시는 10일 ㈜부커스, ㈜아름게임즈, 미디어스코프㈜, ㈜지담미디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진흥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1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부커스, ㈜아름게임즈, 미디어스코프㈜, ㈜지담미디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진흥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임동명 ㈜부커스 대표이사, 강병종 ㈜아름게임즈 대표이사, 금기훈 ㈜미디어스코프 대표이사, 안형조 ㈜지담미디어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이들 기업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광주로 본사 이전을 마치고, 각각 20명 이상의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기업 이전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시설·장비 활용과 지역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협약기업인 ㈜부커스는 B2B·B2G 구독형 전자책 플랫폼을 운영하며, 2000여개 출판사와 협력해 120여개 기업·기관·도서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아름게임즈는 네오위즈 인기 모바일 게임 '고양이와 스프' IP를 활용한 '고양이와 스프: 말랑타운'을 서비스 중이다.

미디어스코프㈜는 가입자 85만명을 보유한 소셜 노래방 앱 '싱잇'을 운영하며, 온라인 오디션·K-POP 콘테스트 등 참여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담미디어는 '결혼작사 이혼작곡' 시리즈, '법대로 사랑하라'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를 제작해 왔으며, IP 사업 매출이 1800억원을 넘는 중견 제작사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이 인공지능(AI) 대표도시이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테크·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며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19개 기업이 광주에 둥지를 틀며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확장에 힘을 보탰다.

투자진흥지구 내 기업에는 △투자 실행 행정 지원 △문화콘텐츠 기반시설 활용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이 제공된다.

특히 광주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상제작 장비를 갖춘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실감형 콘텐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GCC사관학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등 촘촘한 콘텐츠 인프라를 구축해 수도권 기업 유치를 강화해 왔다.

또한 올해 투자진흥지구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팸투어와 상담회를 열어 기반시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방송영상마켓', '인공지능페스타'와 연계한 기업유치 설명회에서는 101개 기업 관계자와 65건의 이전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4개 기업이 광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인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 건설 투자협약 환영"

광주경총, 경제 활성화·고용 창출 등 기여 기대

금호타이어가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해 전남도, 함평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역 경제계가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화재로 가동을 멈췄던 금호타이어의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한 전남도와 함평군의 투자 협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역사회와 산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준 화재 사고의 파장과 여파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흔들림 없이 사고수습에 임하는 것은 물론 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한 착실한 준비에 나서는 등 60여년 호남을 대표해 온 향토기업 다운 저력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며 "위기에 강한 기업의 면모를 지역사회 안팎에 확실히 드러내 지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있어 이번 협약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 건설은 지역 미래먹거리 산업의 기관차로 벌써부터 지역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함평 신공장 건설'을 위해 1단계로 6609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연간 타이어 530만본 생산과 정련고무 700만본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최신식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2028년부터 본 가동에 나서며 이후 진행될 2단계 추가 건설을 통해 최종 연간 1000만본 생산 규모의 함평 신공장을 짓는다.

함평군은 친환경 앵커기업인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을 통해 빛그린산단이 초광역 K-모빌리티의 중심산단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제 금호타이어는 화재 사고의 아픔을 딛고 '함평 신공장 시대'의 포문을 활짝 열었다"며 "다시 한번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 건설 투자 협약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위기를 딛고 지역경제 견인차로 금호타이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해양에너지, 전사 비상대응 훈련

㈜해양에너지는 최근 본사 강당에서 시민 안전 확보와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전사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공급지역 내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화재라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해양에너지 임직원과 협력회사를 비롯해 광주시, 북구, 북부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도 참여했다.

실제 상황과 동일한 조건을 구현해 전 부서가 동시에 참여,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사고 수습·복구, 대민 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이번 전사 비상훈련을 계기로 재난 대응 체계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혼선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광주 수출기업 22개사 '수출의 탑' 수상

엠피닉스㈜ 2000만불탑 등
9명 수출 유공포상도 진행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0일 광주시와 함께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62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광주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엠피닉스㈜ 등 광주지역 22개사가 '수출의 탑'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0일 광주시와 함께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제62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광주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지역 경제를 이끄는 수출기업과 무역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출 진흥과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최은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들, 100여명의 무역인들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격려하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행사에서는 22개사에 대한 수출의 탑 시상과 수출 유공자 9명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수출의 탑에서는 엠피닉스㈜(광학부품)가 2000만불탑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1000만불탑에는 ㈜씨너지(소프트웨어), 주식회사 씨아이에스케미칼(기타정밀 화학원료), 주식회사 유창종합식품(수산가공품)가 이름을 올렸다. 700만불탑은 주식회사 지원오토(판유리), 500만불탑은 주식회사 해산푸드(김), ㈜천일(포장재)에게 돌아갔다.

300만불탑에는㈜아이티스퀘어(스마트그리드), ㈜킴즈메드(의료용품), 주식회사 성복(자동차부품), 한국프라임제약 주식회사(전문의약품), 200만불탑에는 에스케이 이엔지 코퍼레이션(프레스 금형), 유한회사 대승산업(아스팔트 콘크리트), 100만불탑에는 ㈜라도(산업용 필터), 주식회사 에스비엘(LED 광고판), 주식회사 케이테크(금속가공), 이에스글로벌 주식회사(산업용 진공단열재), 주식회사 노리미트(수산물), 주식회사 비에스피글로벌(물류), 주식회사 아산이엔지(금형·합성수지), 주식회사 탄탄세종(자동차용 의자), 코러스(자동차 부품)가 각각 선정됐다.

유공자 포상은 모두 9명이다.

진용남 ㈜씨너지(소프트웨어) 대표가 은탑산업훈장, 강상도 엠피닉스㈜ 대표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이성오 주식회사 씨아이에스케미칼 대표, 장대석 주식회사 유창종합식품(수산가공품) 대표, 양필석 ㈜호원(자동차 부품) 상무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감송희 ㈜킴즈메드 대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박선자 주식회사 에스비엘 대표와 나웅일 ㈜호원 반장은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김총명 유한회사 애니체(사무용 가구) 팀장은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힘써줘 감사하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 활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